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 하루에 하나

2024.4.24

April

| S | M | T | W | T | F | S |
|---|---|---|---|---|---|---|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 | |

**원/달러 환율**

1,378.30원 (-0.90원)

**KOSPI**

2,623.02 (-6.42, -0.24%)

**KOSDAQ**

845.44(-0.38, -0.04%)

**국고채 10년 금리**

3.627(-0.02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 Global Asset Strategy

| | |
|---|---|
| Quant Model Portfolio | 배당 및 가치주 재차 관심 필요 [이경수] |
| CrediVille | 건생금생(建生金生), 건사금사(建死金死) [김상만] |

## 기업분석

| | |
|---|---|
| 오리온 |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 [심은주] |
| HD현대일렉트릭 | 비수기에도 두 자리 수 마진 달성 [유재선] |
| SGC에너지 | 발전 부문 마진 상승. 건설도 정상화 [유재선] |
| 컨텍 | 우주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집중될 시기 [김두현]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기,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BGF리테일, 코스맥스, 대상, SGC에너지, 파라다이스, SOOP, 컨텍

하나증권

2024년 4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Quant Model Portfolio

## 배당 및 가치주 재차 관심 필요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 배당/가치주 눌림목에 베팅 집중 전략

지난 4월 하나 퀀트 포트폴리오 전략은 총선 전후의 밸류업 정책 카리스마 우려 등을 근거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일시적인 로테이션 액션이 핵심이었다. 다만, 5월에는 재차 코리아 밸류업 정책의 주력인 배당주 및 퀄리티, 가치주 등에 베팅하고자 한다.

### 배당 및 가치주 베팅 적기인 이유

1. 금투세 이후 개인 투자 스킴 변화 가능성이다. 연말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3억 이하 **22%**, 3억 이상 **27.5%**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 스킴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테면, 배당주에 대한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개별 종목군의 시세 차익 투자스킴에서 중장기 배당투자로의 변경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배당(이자)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과세(종합 소득 10억원 초과 부분 최대 45% 세율)이기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책이 필수적인 가정**이기는 하다.

1-1. 참고로 과거 대만 금투세 시행 및 폐지 사례. 대만은 **'88년 9월 24일**, 1989년 1월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최대 50%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대만 주가 및 거래대금 급감으로 '90년도 1월 1일 다시 폐지하였다. 당시 정책 결정 시점에서 1개월간 대만 주식시장은 -36%, 거래대금은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이후 **'12년 7월 25일**, '1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600만 대만 달러 초과분에 20% 세율)이 통과되었다. 당시 정책 이후 주가 및 거래대금이 꾸준히 오르며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13년 6월 25일**, '18년까지 시행 유예가 결정되었고 이 시기부터 대만의 주가 및 거래대금은 급증하였다. 결국 **'15년 11월 17일**, '16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주식양도세를 철회하는 법안이 승인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당시부터 '16년까지 대만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금투세 결정과 주가 관계는 제한적 상관성).

2.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 등 미국 명목 금리가 상승 중인데, 이는 가치주 강세 요인이다.

3. 외인 및 기관의 저평가 매수 / 고평가 매도 베팅이 지속되고 있다. 외인들의 저평가 추종 매매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은 금주부터 저평가 스타일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어 수급적인 임팩트(기대감)가 긍정적이다.

4. 5월에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이 확정 예정이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디테일한 언급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추진 등도 추가 트리거이다.

5. 일본은 작년부터 현재 배당 및 가치 팩터 우상향 지속 흐름이다.

6. 밸류업 정책 후 코스피 배당금 컨센서스 지속 상승 중이다.

2024년 4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CrediVille

## 건생금생(建生金生), 건사금사(建死金死)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상인 sanginkim@hanafn.com

### 건설사와 대주단은 운명공동체이다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강세가 지속되었다. 특이한 것은 잇따른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에 따른 통화정책완화 기대감약화로 인해 국내외 시장지표가 상승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스프레드가 하락세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주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부각에 따른 위험자산회피/안전자산선호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크레딧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강세현상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간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은 가격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세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여건들이 뒷받침되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급적인 측면으로 지금까지 자제(?)하고 있었던 은행/공사채와 같은 초우량물의 공급가뭄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둘째, 수요적인 측면으로 지금까지 시장강세를 이끌어온 레버리지성 자금의 지속적인 설정가능성여부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반등하고 있는 시장금리의 향후 움직임이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시장금리가 레벨업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그같은 성격의 자금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진행방향이다. 이제 벌써 4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일단 별일없이 넘어갈, 근거없는 기우였던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하지만 4월 위기설의 실체는 "4월에 위기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4월부터 위기관리를 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전경고성 시그널의 성격이 크다는 판단이다.

전주 자료에서 부동산PF와 관련된 구조조정의 방향성이 태영건설 워크아웃방안의 처리와 맞물려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 주채권은행의 기업개선계획에 따르면 60개의 PF사업장중 10곳은 경공매처리, 17곳은 시공사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경공매처리되는 사업장에 대한 PF지급보증 우발채무는 태영건설의 본채무로 전환되면서 지급보증부담이 현실화되기 시작될 것이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전체 PF이슈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간 부동산PF에 대한 구조조정시도 내지 노력은 사업성이 저하된 프로젝트에 대한 충당금적립강화와 같은, 대주단 입장에서의 손실분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주단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PF대출에 대해 물적담보(선순위) 또는 건설사지급보증(중후순위)과 같은 담보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 건설사가 버티고 있는 한 끝까지 미련을 버리기 힘들다. 한편 만일 대주단이 부실프로젝트에 대한 채권보전에 공세적으로 나설 경우 그런 행동자체가 건설사들의 유동성부실을 촉진시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권의 PF대출 관련 충당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건설사PF 충당금의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PF금융 관행상 PF대출에 대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건설사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사PF처리 문제는 건설사PF처리와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돌고 돌아 다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4년 04월 24일 | 기업분석_Update

# 오리온 (271560)

##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

**BUY (유지)**

| | |
|---|---|
| 목표주가(12M) | 140,000원(하향) |
| 현재주가(4.23) | 92,1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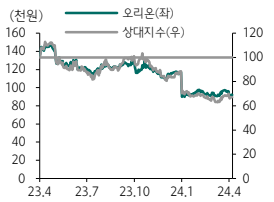
**Key Data**

| | |
|---|---|
| KOSPI 지수 (pt) | 2,623.02 |
| 52주 최고/최저(원) | 147,800/89,700 |
| 시가총액(십억원) | 3,641.3 |
| 시가총액비중(%) | 0.17 |
| 발행주식수(천주) | 39,536.1 |
|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 265.6 |
|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 24.8 |
| 외국인지분율(%) | 31.80 |
| 주요주주 지분율(%) | |
| 오리온홀딩스 외 7 인 | 43.80 |
| 국민연금공단 | 8.04 |

**Consensus Data**

| | 2024 | 2025 |
|---|---|---|
| 매출액(십억원) | 3,168.2 | 3,380.0 |
| 영업이익(십억원) | 558.4 | 599.2 |
| 순이익(십억원) | 425.8 | 457.1 |
| EPS(원) | 10,476 | 11,252 |
| BPS(원) | 81,792 | 91,630 |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 투자지표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매출액 | 2,873.2 | 2,912.4 | 3,160.1 | 3,349.7 |
| 영업이익 | 466.7 | 492.4 | 561.2 | 618.3 |
| 세전이익 | 486.7 | 520.0 | 597.6 | 667.9 |
| 순이익 | 392.4 | 376.6 | 432.4 | 475.9 |
| EPS | 9,924 | 9,527 | 10,937 | 12,036 |
| 증감율 | 52.26 | (4.00) | 14.80 | 10.05 |
| PER | 12.90 | 12.19 | 8.46 | 7.69 |
| PBR | 1.98 | 1.60 | 1.13 | 1.00 |
| EV/EBITDA | 6.79 | 5.51 | 3.40 | 2.63 |
| ROE | 16.47 | 13.91 | 14.16 | 13.76 |
| BPS | 64,609 | 72,415 | 82,102 | 92,888 |
| DPS | 950 | 1,250 | 1,250 | 1,250 |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 1Q24 Re: 시장 기대 부합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467억원(YoY 12.2%), 1,254억원(YoY 24.8%)을 기록했다(국가별 단순합산으로 연결 조정 전 수치).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① 국내 매출액은 YoY 9.5% 증가했다. 국내에서의 안정적 지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미국 향 수출 증가가 주효했다. '꼬북칩' 및 '초코송이'가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탑라인 호조 기인해 영업이익도 YoY 17.1% 개선되었다. ② 중국 매출은 춘절 효과 온기 반영 기인해 YoY 16.0% 증가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저수익 채널의 영업방식을 전환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매출 공백이 불가피하다. 1분기는 춘절 효과가 물론 주효했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신규 카테고리 확대를 통해 일시적 매출 공백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베트남 매출액은 YoY 12.3% 증가했다. 내수 소비 둔화가 여전히 부담이나 가성비 제품 출시를 통해 극복 중이다. ④ 러시아 매출액은 YoY 4.8% 증가했다. 로컬 통화로는 20.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초코파이 라인 증설 및 젤리 카테고리 확대 힘입어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리가켐바이오' 지분 인수 우려 일부 해소

연초 팬오리온은 리가켐바이오 지분 25.7%를 약 5,40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리가켐바이오는 ADC관련 기술을 보유한 명망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품 업태와의 제한적 시너지 및 단기 이익 가시성 저하 측면에서 오리온 주가는 20% 하락했다. ① 관련된 추가 자금 투입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며, ② 지분율 감안시 오리온 실적에는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③ 향후 가시화될 인수합병은 본업과의 시너지가 가능한 업체로 압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④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연결 기준 배당성향을 현재 10% 내외에서 향후 3개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 주가는 하방경직 보유 판단

2024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조 1,601억원(YoY 8.5%), 5,612억원(YoY 14.0%)으로 추정한다. 국가별 매출 성장률은 각각 한국 8.3%/중국 7.6%/ 베트남 9.1%/ 러시아 21%로 예상한다. 실적 및 밸류에이션 및 추정치 조정으로 목표주가는 기존 1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하향한다. 다만, '리가켐바이오' 인수 관련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현 주가는 하방경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24년 4월 24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 HD현대일렉트릭 (267260)

## 비수기에도 두 자리 수 마진 달성

**BUY**

| | |
|---|---|
| 목표주가(12M) | 280,000원(상향) |
| 현재주가(4.23) | 240,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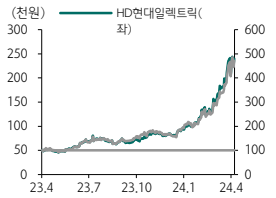
**Key Data**

| | |
|---|---|
| KOSPI 지수 (pt) | 2,623.02 |
| 52주 최고/최저(원) | 244,000/45,600 |
| 시가총액(십억원) | 8,651.3 |
| 시가총액비중(%) | 0.40 |
| 발행주식수(천주) | 36,047.1 |
|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 498.9 |
|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 88.4 |
| 외국인지분율(%) | 28.70 |
| 주요주주 지분율(%) | |
| 현대중공업지주 외 7 인 | 40.04 |
| 국민연금공단 | 9.84 |

**Consensus Data**

| | 2024 | 2025 |
|---|---|---|
| 매출액(십억원) | 3,389.2 | 3,941.4 |
| 영업이익(십억원) | 455.3 | 568.6 |
| 순이익(십억원) | 328.3 | 412.9 |
| EPS(원) | 9,074 | 11,527 |
| BPS(원) | 37,071 | 47,278 |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 투자지표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매출액 | 2,104.5 | 2,702.8 | 3,486.3 | 3,904.1 |
| 영업이익 | 133.0 | 315.2 | 537.5 | 684.2 |
| 세전이익 | 163.9 | 310.5 | 495.9 | 638.1 |
| 순이익 | 162.5 | 259.2 | 377.6 | 485.0 |
| EPS | 4,508 | 7,189 | 10,475 | 13,453 |
| 증감율 | 흑전 | 59.47 | 45.71 | 28.43 |
| PER | 9.43 | 11.43 | 22.91 | 17.84 |
| PBR | 1.83 | 2.79 | 6.16 | 4.72 |
| EV/EBITDA | 10.74 | 9.55 | 12.71 | 9.74 |
| ROE | 22.12 | 27.71 | 30.98 | 30.25 |
| BPS | 23,242 | 29,500 | 38,976 | 50,832 |
| DPS | 500 | 1,000 | 1,600 | 2,000 |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채운샘 unsam1@hanafn.com

### 목표주가 280,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HD현대일렉트릭 목표주가 280,000원으로 기존대비 100%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5년 EPS로 목표주가 산정 시점을 변경했으며 PER 21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2024년 1분기 말 기준 신규 수주 14.4억달러, 수주잔고 50.8억달러를 기록했다. 연초 제시된 2024년 수주 목표 37.4억달러 대비 상당히 빠른 달성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중 상고하저 패턴의 수주 흐름이 예상된다. 2024년 추정치 기준 PER 22.9배, PBR 6.2배다.

### 1Q24 영업이익 1,288억원(YoY +178.2%)으로 컨센서스 상회

1분기 매출액은 8,0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9% 증가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ESS 매출이 조기 인식되면서 전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전력기기는 북미, 중동 시장 강세에 더해 국내, 유럽도 매출 확대가 나타났다. 배전기기는 PAD 변압기가 성장에 기여했고 회전기기는 선박용과 친환경 프로젝트 제품 매출이 증가했다. 종속법인은 미주 법인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법인 매출도 안정화된 모습이다. 영업이익은 1,288억원으로 전년대비 178.2% 증가했다. 전력기기 주요 전방 시장 수익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배전기기도 마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사와 중국 법인 장기미수채권 관련 충당금 환입, 재고자산충당금 환입, 예산 대비 적었던 재료비 등 일회성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는 150억원 정도로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업황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실적 변수

2023년 연말 진행되던 미주, 중동 일부 대형공사 건들이 1분기 수주로 반영됨에 따라 수주잔고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장기공급계약으로 납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수요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한정된 공급능력으로 수급불균형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요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Capa 확장 정책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판매자 우위 시장은 오랜 기간 지속될 여지가 충분하다. 원/달러 환율은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호적인 구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하반기 마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이익률 추이는 점진적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4월 24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 SGC에너지 (005090)

## 발전 부문 마진 상승. 건설도 정상화

**BUY**

| | |
|---|---|
| 목표주가(12M) | 42,000원 |
| 현재주가(4.23) | 25,1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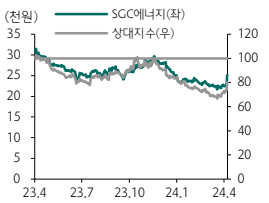
**Key Data**

| | |
|---|---|
| KOSPI 지수 (pt) | 2,623.02 |
| 52주 최고/최저(원) | 30,500/21,700 |
| 시가총액(십억원) | 361.7 |
| 시가총액비중(%) | 0.02 |
| 발행주식수(천주) | 14,409.3 |
|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 30.3 |
|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 0.7 |
| 외국인지분율(%) | 3.33 |
| 주요주주 지분율(%) | |
| 이우성 외 8 인 | 54.75 |

**Consensus Data**

| | 2024 | 2025 |
|---|---|---|
| 매출액(십억원) | 2,588.7 | 2,613.4 |
| 영업이익(십억원) | 136.3 | 150.0 |
| 순이익(십억원) | 58.6 | 67.5 |
| EPS(원) | 3,921 | 3,944 |
| BPS(원) | 51,481 | 53,737 |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 투자지표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매출액 | 2,823.3 | 3,024.1 | 2,350.0 | 2,829.9 |
| 영업이익 | 209.4 | 106.8 | 187.8 | 211.6 |
| 세전이익 | 198.4 | 28.4 | 127.4 | 153.0 |
| 순이익 | 112.8 | 42.1 | 81.5 | 88.6 |
| EPS | 7,686 | 2,879 | 5,659 | 6,150 |
| 증감율 | 88.29 | (62.54) | 96.56 | 8.68 |
| PER | 4.03 | 9.48 | 4.44 | 4.08 |
| PBR | 0.63 | 0.55 | 0.47 | 0.43 |
| EV/EBITDA | 4.61 | 7.41 | 5.50 | 5.12 |
| ROE | 17.44 | 5.96 | 10.90 | 10.96 |
| BPS | 49,343 | 49,924 | 53,883 | 58,334 |
| DPS | 1,700 | 1,700 | 1,700 | 1,700 |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채운샘 unsam1@hanafn.com

### 목표주가 42,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SGC에너지 목표주가 42,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건설 부문의 흑자 전환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저수익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있어 연내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발전 부문은 낮은 SMP 레벨에도 원가 절감으로 안정적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일시적 실적 개선에 더해 하반기 SMP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적 눈높이는 점차 상향될 여지가 많다. 2024년 기준 PER 4.4배, PBR 0.4배다.

### 1Q24 영업이익 514억원(YoY +66.5%)으로 컨센서스 상회

1분기 매출액은 5,59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6% 감소했다. 발전/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SMP 약세를 기록했고 건설/부동산 부문에서는 선별 수주에 따른 잔고 감소 영향으로 외형이 둔화되었다. 영업이익은 514억원으로 전년대비 66.5% 증가했다. 건설/부동산 이익은 전분기대비 흑자로 전환되었다. 과거 원가 높은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개선되었고 늦어도 하반기부터 지난해 수주한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마진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에너지는 겨울철 성수기 발전량 증가 및 원재료 투입원가 하락으로 이익률이 상승했다. 온실가스배출권 판매로 인한 원가 감소를 고려해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건설 흑자 기조 지속 기대. 연간 추정치 개선 국면

건설/부동산 실적은 하반기부터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실적 측면에서 부정적 이슈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되어온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점차 하락하여 기말 기준으로 별도 자본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 최근 환율, 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SMP 강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원재료인 유연탄 및 우드펠릿 가격은 유가와 달리 안정화되는 구간에 있어 향후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는 REC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발전/에너지 부문 실적도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04월 2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 컨텍 (451760)

## 우주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집중될 시기

**Not Rated**

**현재주가(4.23)** **17,2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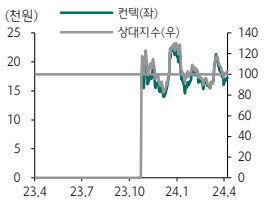
**Key Data**

| | |
|---|---|
| KOSPI 지수(pt) | 845.44 |
| 52주최고/최저(원) | 22,750/13,960 |
| 시가총액(십억원) | 251.8 |
| 시가총액비중(%) | 0.06 |
| 발행주식수(천주) | 14,940.5 |
| 60일 평균거래량(천주) | 391.9 |
|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 7.1 |
| 외국인 지분율(%) | 0.18 |
| 주요주주 지분율(%) | |
| 이성희 외 5 인 | 28.95 |
| 힐스프링인베스트먼트 외 2 인 | 8.05 |

**Consensus Data**

| | 2024 | 2025 |
|---|---|---|
| 매출액(십억원) | 30 | N/A |
| 영업이익(십억원) | (1) | N/A |
| 순이익(십억원) | 7 | N/A |
| EPS(원) | 3 | N/A |
| BPS(원) | N/A | N/A |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 투자지표 | 2020 | 2021 | 2022 | 2023 |
|---|---|---|---|---|
| 매출액 | 0 | 6 | 13 | 16 |
| 영업이익 | 0 | (2) | (2) | (10) |
| 세전이익 | 0 | (13) | (21) | (63) |
| 순이익 | 0 | (12) | (21) | (65) |
| EPS | 0 | (2,055) | (3,153) | (6,212) |
| 증감률 | N/A | N/A | 적지 | 적지 |
| PER | 0.0 | 0.0 | 0.0 | (2.5) |
| PBR | 0.0 | 0.0 | 0.0 | 2.0 |
| EV/EBITDA | 0.0 | 0.0 | 0.0 | 0.0 |
| ROE | 0.0 | 111.6 | 66.9 | (59.2) |
| BPS | 0 | (1,804) | (4,372) | 7,517 |
| DPS | 0 | 0 | 0 | 0 |

Analyst 김두현
kimdoohyun11@hanafn.com

### 우주 지상국 시스템 솔루션 및 네트워크 솔루션 No.1 업체

컨텍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Spin-Off하여 2015년 설립된 위성데이터 관련 플랫폼 서비스 및 지상국 설계 구축 통합 서비스 전문 업체이다. 과거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에서는 규모가 큰 중대형 위성 발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민간 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 그러나 위성이 초소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며 부품 조달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비용 절감이 나타나며 민간 기업의 산업 진출이 용이해진 상황이다. 오는 5월 국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예정된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발사 위성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위성 수의 증가는 지상국 설치 증가로 직결되기에, 컨텍은 지상국 시스템 솔루션과 위성 데이터 서비스(GSaaS)를 주력으로 우주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78%, GSaaS 네트워크 솔루션 6%, 위성영상 데이터처리 솔루션 4%, 위성영상 활용 솔루션 6%, 기타 6%이다. 향후 지상국 설치 확대에 따라 GSaaS 솔루션 매출 비중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레버리지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 퍼져나가는 자체 지상국, 매력적인 사업 모델

향후 성장 동력은 GSaaS 네트워크 솔루션에 집중될 것이다. 관측위성은 영상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야 하는데, 위성 내 데이터 메모리 저장공간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특정 지역 촬영 후 지상국 향 데이터를 송신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컨텍은 2019년 제주도에 최초의 민간 지상국을 구축한 레퍼런스를 지니며 현재 글로벌 총 10개의 자체 지상국을 보유 중이다. 자체 지상국을 통해 고객사 위성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건마다 일정 비용을 과금하는 사업 구조이다.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GSaaS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 우주 산업 다운스트림 밸류체인을 구축한 업체는 국내에서 컨텍이 독보적이며, 고객사 입장에서도 자체 지상국 설치 및 데이터 송수신 대비 동사의 솔루션 이용이 가격 경쟁력을 지니기에 우주 산업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고객사 증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컨텍은 자체 지상국 5개 추가 구축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지상국 원재료인 안테나 수급 이슈로 일부 물량 지연 가능성 존재하지만 지상국 구축 지속 증가에 따라 향후 GSaaS 솔루션 매출 비중 증가 및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위성영상 데이터처리 솔루션, 위성영상 활용 솔루션 향으로도 사업 확장이 진행 중이며 특히 위성영상 활용의 경우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기에 고마진의 사업이다. 향후 GSaaS 솔루션 실적과 함께 전사 수익성 개선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 실적 본격 개선의 초입 구간

컨텍의 2024년 매출액 311억원(+92.4%, YoY), 영업이익 -31억원(적자지속, YoY)로 예상한다. 지상국 솔루션 수요 확대로 인해 연내 신규 수주 400억원 이상 발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수주잔고 450억원으로 실적 반영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하다. 사업 비용 발생 및 지상국 구축 일부 연기로 올해 영업적자가 예상되지만 지상국 15개 전격 가동이 유력한 2025년에는 완연한 흑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 종목 | 편입일 | 기준가 | 전일종가 | 수익률 | 투자 포인트 |
|---|---|---|---|---|---|
| 삼성전기 (009150.KS) | 4/22 | 142,900 | 143,200 | 0.21% | • 2024년 스마트폰 중국 및 유럽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br>• MLCC 턴어라운드와 패키지기판도 온디바이스AI, 스마트폰 회복 수혜 가능 |
| 현대글로비스 (086280.KS) | 4/22 | 171,200 | 177,000 | 3.39% | • 완성차 생산/수출 물량 증가, 스마트 물류솔루션 사업에서 400억 규모 계약 체결<br>• 연결 기준 투자 2023년 3,600억원 수준에서 2024년에 1.1조원까지 늘릴 계획 |
| 현대로템 (064350.KS) | 4/22 | 41,150 | 40,900 | -0.61% | • 1분기 폴란드향 K2 전차 18대 납품 매출, 이익 동반 증가 가능. 실적 기대감 여전히 유효<br>• 루마니아 K2 전차 수주 규모가 예상 대비 클 것으로 전망되어 수주 기대감 유효 |
| BGF리테일 (282330.KS) | 4/22 | 128,900 | 130,800 | 1.47% | • 연간 800~900개 순증 이어나가며 점포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외형성 장세 지속<br>• 밸류에이션 10배 수준으로 2~3분기부터 성장률, 이익 모멘텀 회복 예상 |
| 코스맥스 (192820.KS) | 4/22 | 134,500 | 129,000 | -4.09% | • 중국 수주 회복 및 리스타킹 도래, 잇센-JV 연결 반영으로 고성장 전망<br>• 미국 가동률 상승/손실 축소 및 재무구조 개선 기대 |
| 대상 (001680.KS) | 4/22 | 20,900 | 21,650 | 3.59% | • 1Q24 Preview 매출액 1.02조원(YoY +3.8%), 영업이익 421억원(YoY +69.2%) 전망<br>• 기저효과와 더불어 바이오 및 연결 자회사 PT인도네시아 실적 개선 기대 |
| SGC에너지 (005090.KS) | 4/22 | 22,550 | 25,100 | 11.31% | • SMP는 최근 유가 강세 영향이 반영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전망<br>• 건설/부동산 실적은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 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접근 용이 |
| 파라다이스 (034230.KQ) | 4/22 | 15,090 | 14,680 | -2.72% | • 1Q24 Preview 매출액 2,737억원, 영업이익 500억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전망<br>•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및 중국 인바운드 데이터 호조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 |
| SOOP (067160.KQ) | 4/22 | 112,600 | 119,600 | 6.22% | • 트위치 철수 이후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선도하며 안정적인 증익 기대<br>• 2024년 영업수익 4,240억원(YoY +22.0%), 영업이익 1,157억원(YoY +28.1%) 전망 |
| 컨텍 (451760.KQ) | 4/22 | 16,740 | 17,260 | 3.11% | • 우주지상국 설계, 구축과 위성 데이터 수신, 분석 및 활용 가능한 우주 토탈 솔루션 기업<br>• 지상국 시스템의 통합 운용 방식은 자체 개발 SW으로 다양한 제조사 장비와 호환 가능 |

###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 주간(This week) | | 누적(YTD) | |
|---|---|---|---|
| 수익률 | BM대비 수익률 | 수익률 | BM대비 수익률 |
| +2.17% | +0.96%p | +2.24% | +3.04%p |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 종목 | 편입일 | 기준가 | 전일종가 | 수익률 | 투자 포인트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 4/22 | 234,000 | 236,500 | 1.07% | • 1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나, 이후 실적 및 수주 흐름 좋을 것으로 판단<br>• 이스라엘-이란 충돌 리스크 확대되는 가운데 방산주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 CJ제일제당 (097950.KS) | 4/22 | 335,000 | 341,500 | 1.94% | • 1Q24 Preview 매출액 7.4조원(YoY +5.8%), 영업이익 3,689억원(YoY +45.9%) 전망<br>• 현재 12개월 Fwd PER 8배 내외에 불과해 저가 매수 전략 유효 |
| 현대차 (005380.KS) | 4/1 | 233,000 | 249,500 | 7.08% | • 현재 PER 5배대, PBR 0.5배대의 Valuation, 높은 배당수익률(보통주 기준 5%)<br>• 견조한 실적과 하반기 북미 전기차 공장의 완공과 아이오닉7 출시로 주가의 모멘텀 기대 |
| 하나금융지주 (086790.KS) | 4/1 | 57,700 | 57,600 | -0.17% | • 어려운 환경에도 DPS 상향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 확대 등 주주환원 의지 강해<br>• 비은행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2024년 이익 개선 폭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을 전망 |
| 고려아연 (010130.KS) | 4/1 | 452,000 | 461,500 | 2.10% | • 1Q24 판매량 감소에도 판매가격은 우호적인 전망에 영업실적 긍정적일 것<br>• 전체 판매량 증가, 공정합리화 포함 각종 비용 절감, 아연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적 양호할 것 |
| S-Oil (010950.KS) | 4/1 | 78,500 | 77,400 | -1.40% |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성 확대 시 수혜 기대<br>•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정제 마진 상승 |
|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 4/1 | 179,400 | 240,000 | 33.78% | • AI 열풍에 데이터센터 시설 수요 급증하면서 변압기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br>• 올해 전력기기 업황 우호적 환경 속 중장기 실적 성장 기대감 존재 |
| 키움증권 (039490.KS) | 4/1 | 121,700 | 130,800 | 7.48% | • 금리 하락 및 공매도 금지 조치로 거래대금 증가 시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예상<br>• 낮은 부동산 익스포저로 증권업종 내에서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가장 적은 편 |
| 씨앤씨인터내셔널 (352480.KQ) | 4/1 | 73,900 | 81,400 | 10.15% | • 북미 최대 고객사 Top2 수주 확대, 글로벌 프레스티지 고객사 신규 수주 및 고객 다양화<br>• 국내 대표 색조 브랜드사의 미/일/동남아로의 외형 확대로 인한 수주 증가 |

###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 분기(2Q) | | 누적(YTD) | |
|---|---|---|---|
| 수익률 | BM대비 수익률 | 수익률 | BM대비 수익률 |
| +2.98% | +7.48%p | +5.11% | +5.91%p |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ETF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팀

## 국내 ETF

| 종목 | 편입일 | 기준가 | 전일종가 | 수익률 | 투자 포인트 |
|---|---|---|---|---|---|
| HANARO CAPEX 설비투자iSelect (454320.KS) | 2024.04.01 | 12,745 | 13,495 | 5.88% |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증가하는 설비투자 수요의 수혜가 기대되는 2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br>• 건축설비, 전력설비, 공작기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의 5개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편입 대상. 실제 사업 연관성 점검을 통해 종목 편출 가능. 한 종목의 편입 비중을 2~10% 범위로 설정하여 분산투자 효과↑ |
|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476070.KS) | 2024.02.29 | 11,985 | 11,200 | -6.55% | •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제를 제조 및 개발 중인 기업들로 구성된 ETF<br>• 비만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 가운데 생산량 대비 초과 수요 형성.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인수합병 작업도 함께 진행 중. 시장 규모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부각 전망 |
| ARIRANG K방산Fn (449450.KS) | 2024.02.29 | 13,805 | 16,210 | 17.42% | •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들로 구성된 테마 ETF<br>• 글로벌 각국의 국방 예산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구성 기업들의 해외 수주 모멘텀 부각.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향후 수출 확대 기대가 더욱 증가 |
| KODEX 미국빅테크10(H) (314250.KS) | 2023.07.05 | 28,980 | 33,915 | 17.03% | • 미국 대표 기술주에 동일가중방식으로 투자하는 ETF. 환헷지 전략을 통한 환율변동 리스크 최소화하는 구조<br>• 미국 기술주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되는 가운데, AI 모멘텀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대 우위 흐름 이어갈 전망 |

## Global ETF

| 종목 | 편입일 | 기준가 | 전일종가 | 수익률 | 투자 포인트 |
|---|---|---|---|---|---|
| GRID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 2024.04.01 | 114.61 | 110.26 | -3.80% |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기업들로 구성된 글로벌 테마 ETF<br>• 전력 그리드와 계량기, 장치 기업과 에너지 저장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포괄적으로 편입. 미국 양당 모두 인프라 정책에 우호적. AI 산업의 성장으로 급증한 전력 수요가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로 연결 |
| VCSH (미국 단기 회사채) | 2024.03.08 | 77.28 | 76.53 | -0.97% | • 1년~5년 만기의 투자등급 회사채로 구성된 단기회사채 ETF<br>•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유효. 다만 더디게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안정 속도와 추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준의 스탠스 고려시 채권시장의 단 기 박스권 형성 가능성 염두. 금리 레벨을 고려한 듀레이션 축소 필요 |
| ITA (미국 우주항공 &방산주) | 2024.03.01 | 127.89 | 128.54 | 0.51% | • 미국의 항공기 제조/조립/유통 기업과 군용기, 무기, 레이더 등의 방위 장비 및 군수업 관련 기업들을 편입하는 우주항공&방산 ETF<br>• 금리인하 예상 시기가 늦춰지는 과정에서 점차 펀더멘털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 시장금리 레벨이 상향된 가운데 방산업의 안정성 부각. 공화당 경선과 대선 지지율 상황 및 러시아 관련 제재 증가 움직임도 방산 기업들에 긍정적 모멘텀 |
| MAGS (대형 기술주) | 2023.10.30 | 28.92 | 36.89 | 27.56% |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구조<br>• 미국 기술주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되는 가운데, Magnificent7으로 불리우는 상기 7개 종목들은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한 대표 대형주들이라는 판단 |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 | ▪ 한국 4월 1-20일 수출/입 (11.1%/6.1%, 3월 11.2%/-6.3%)<br>▪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 P (-14.7P, 3월 -14.9P) | ▪ 한국 3월 생산자물가 (1.6%, 2월 1.5%)<br>▪ 일본 4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49.9P, 3월 48.2P)<br>▪ 유로존 4월 HCOB 제조업 PMI P (E --, 3월 46.1P)<br>▪ 미국 4월 S&P Global 제조업 PMI P (E --, 3월 51.9P)<br>▪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E 2.0%, 2월 -0.3%) | ▪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E --, 3월 100.7P)<br>▪ 독일 4월 IFO 기업환경예상 (E --, 3월 87.8P)<br>▪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P (E 2.8%, 2월 1.3%)<br>▪ 미국 3월 항공기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 P (E 0.3%, 2월 0.7%) | ▪ 한국 5월 제조업 BSI (E --, 4월 73.0P)<br>▪ 한국 1분기 GDP P (E --, 4분기 2.2%)<br>▪ 일본 2월 선행지수/동행지수 P (E --/--, 1월 111.8P/110.9P)<br>▪ 미국 3월 도매재고 P (E --, 2월 0.5%)<br>▪ 미국 1분기 GDP P (E --, 4분기 3.4%)<br>▪ 미국 3월 미결주택매매 (E --, 2월 1.6%) | ▪ 일본 4월 기준금리 (E 0.1%, 3월 0.1%)<br>▪ 미국 3월 개인소득/개인소비 (E --/--, 2월 0.3%/0.8%)<br>▪ 미국 3월 PCE 디플레이터/근원 PCE 디플레이터 (E --/--, 2월 2.5%/2.8%)<br>▪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F (E 77.9P, 3월 79.4P) | |
| | | | | ▪ BOJ 4월 금융정책위원회 (~26) | | |
| 4.28 | 4.29 | 4.30 | 5.1 | 5.2 | 5.3 | 5.4 |
| |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 F (E --, 3월 -14.9P)<br>▪ 유로존 4월 경기기대지수 (E --, 3월 96.3P)<br>▪ 독일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3월 2.2%/2.3%)<br>▪ 미국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E --, 3월 -14.4P) | ▪ 한국 3월 소매판매 (E --, 2월 13.7%)<br>▪ 한국 3월 광공업생산 (E --, 2월 4.8%)<br>▪ 일본 3월 실업률 (E --, 2월 2.6%)<br>▪ 중국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E --, 3월 50.8P)<br>▪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3월 2.4%/2.9%)<br>▪ 유로존 1분기 GDP P (E --, 4분기 0.1%)<br>▪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E 104.0P/ 3월 104.7P) | ▪ 한국 4월 수출/입 (E --/--, 3월 3.1%/-12.3%)<br>▪ 미국 4월 ADP 취업자수 변동 (E --, 3월 184K)<br>▪ 미국 4월 ISM 제조업지수 (E 50.0P, 3월 50.3P) | ▪ 미국 4월 기준금리 (E 5.50%, 3월 5.50%)<br>▪ 한국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3월 3.1%/2.4%)<br>▪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F (E 2.8%, 2월 1.3%)<br>▪ 미국 3월 항공기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 F (E 0.3%, 2월 0.7%) | ▪ 유로존 3월 실업률 (E --, 2월 6.5%)<br>▪ 미국 4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E 275K, 3월 303K)<br>▪ 미국 4월 실업률 (E 3.8%, 3월 3.8%)<br>▪ 미국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E 0.3%, 3월 0.3%)<br>▪ 미국 4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F (E --, 3월 51.7P) | |
| | | | ▪ 일본 3월 금정위 의사록<br>▪ 미국 4월 FOMC (~5/1) | | |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